

안동 **시** 문화 **FEEL**

느낌이 있는 관광 | 2025 Summer VOL.70



Contents

2025 Summer VOL.70

안동문화
FEEL

느

낌

이

있

는

관

광

04



재미있는 안동

10



편안한 안동

16



새로운 안동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맛있는 안동



깨끗한 안동



즐거운 안동

발행인 이동원 발행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편집책임 이지현 편집위원 김주호

주소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300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7-9917 이메일 jeanlee@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 www.maskdance.com www.tourandong.com www.andong.go.kr/theme

발행일 2025년 6월(통권 제70호) 편집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종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푸르른 여름, 병산서원의 시원한 사색

/ 글 성윤석(미리벌민속박물관 관장)

/ 사진 한국정신문화재단 외

“미술사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 건축이자 한국 건축사의 백미다”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 -



병산서원(사진 차상훈)



병산서원 전경

안동시 풍천면에 병산서원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유교 건축물로서 병산(屏山)의 장엄한 절벽과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홍준 교수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가 한국 서원 건축의 정수로 평가하며,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 중 하나인 '차경(借景)'의 개념을 가장 잘 구현한 사례로 꼽힌다.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1542~1607) 선생과 그의 제자이며 셋째 아들 수암 류진(1582~1635) 공을 배향한 곳이다. 이곳은 서애 선생께서 31세 때인 1575년에 풍산 상리에 있던 '풍악서당'을 이곳으로 옮겨와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1607년 선생이 돌아가신 후 지역 유림이 '풍악서당' 안에 그를 추모하는 사당인 '존덕사'를 짓고 선생의 위판을 모셨으며, 매년 봄과 가을 향사를 받들면서 서원으로 승격됐다.

4년 뒤 서원 앞 낙동강 건너 병풍 모양으로 둘러서 있는 병산의 이름을 따서 '병산서원'으로 바꿨다. 그 후

철종 14년(1863)에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았으며,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이다.

초록의 기운이 세상을 덮는 여름, 질푸른 생명력이 가득한 병산서원은 문화유산과 자연이 하나 되어 빛어내는 공간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특히 병산서원 앞마당에는 짙은 녹음 가운데 오래된 분홍빛 꽃을 피운 배롱나무가 심어져 병산서원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화사함을 더한다. 서원을 둘러 가며 심어져 있는 배롱나무는 그 모습이 나무껍질 없이 매끈하여, 청렴결백하고 가식 없이 순수한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선비들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이제 병산서원의 입구인 복레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병산서원의 전각 배치는 전형적인 전당후묘의



병산서원 복례문

형식이며 북측을 향해 진입 공간, 강학 공간, 제향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가장 높은 공간에 사당인 존덕사가 자리 잡으며 입교당(강당), 만대루(누각), 복례문(외삼문)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강당 전면 좌우측에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를 두고 있다. 제향 공간을 강학 공간보다 북측에 두는 서원 건축의 위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능에 따라 전각을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¹⁾

교육공간 : 복례문, 만대루, 입교당, 동직재, 정허재, 장판각
제사공간 : 신문, 존덕사, 전사청
유식공간 : 만대루
부속시설 : 주사(廚舍), 달팽이 뒷간, 광영지 등

복례문을 지나 병산서원으로 진입하면 시원하게 트인 만대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만대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팔작지붕의 누각으로 병산서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만대루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구 ‘취병의만대(翠屏宜晚對)’에서 따왔다고 하며, ‘푸른 절벽은 오후 늦게 대할 만하다’라는 뜻이다. 실제 만대루에 앉아 있으면, 정면으로 낙동강의 넓은 백사장과 강 건너 병풍처럼 펼쳐진 병산 절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병산서원 입구

1 병산서원 홈페이지 참고.



동틀녘 만대루에서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옥의 차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하지만 만대루에 올라서면 한쪽의 산수화가 펼쳐지듯 마늘봉에서 너들대벽까지 펼쳐지는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7칸으로 구성된 만대루의 구조는 “7폭의 병풍”에 비견된다. 이는 만대루의 독특한 구조에서 비롯된다. 만대루 어디에서도 병산 전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당 쪽으로 물러앉으면 처마와 난간이 산마루와 강변의 풍경을 가리고, 강변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 열주들이 좌우의 시야를 제한해 관광객은 두 기둥 사이의 한 폭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다.²⁾



병산서원(사진 차상훈)

만대루의 경치를 뒤로 하고 서원의 핵심 공간인 입교당을 향해가면 전면에 심어져 있는 한 그루의 무궁화나무를 볼 수 있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 베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당시 서원 관계자가 끝까지 막아내 현재까지 입교당 앞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입교당에 올라 대청마루에 앉으면 만대루의 지붕과 병산이 어우러진 한국 건축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인위적인 꾸밈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조성된 공간은 보는 이들에게 편안한 심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주사(廚舍) 앞에 달팽이 모양을 한 하늘 열린 통시(화장실)는 또 다른 볼거리로 재미를 준다. 달팽이 뒷간은 어른 키에 조금 모자라는 높이로 진흙 돌담을 둥글게 감아놓은 화장실로 ‘머슴 뒷간’이라고도 불렸으며, 특이한 형상 탓에 화장실 또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병산서원은 전형적인 서원의 배치를 따르면서도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여름날 잠시나마 도시의 소란과 더위를 잊고 싶은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피서지이자, 휴식처이다. 만대루의 시원한 바람 아래 앉아 책을 읽거나, 잔잔한 낙동강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거나, 서원의 고즈넉한 공간을 거닐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은 여름날 병산서원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곳에서 자연과 건축, 그리고 역사가 어우러진 조화를 느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를 바란다.

2 이경근, 「그림 같은 풍경의 재해석 -병산서원 차경 설계의 수양론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2022. 22p 참고.



〈참고문헌〉

1. 논문

- 이경근, 「그림 같은 풍경의 재해석 -병산서원 차경 설계의 수양론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제50권 제6호, 2022.
 박현아·윤재은, 「병산서원에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 특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19.
 허준, 「조망지향 속성에 따른 병산서원의 경관이미지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제37권 제4호, 2009.

2. 홈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병산서원 <http://www.byeongsan.net/>





여름의 시작

/ 글, 사진 김상준

아름다운 것은 늘 우리 곁을 짧게 스치고 지나간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늘 확장되고 팽창하여 길고 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운다.

쌀쌀한 날씨를 지나쳤다. 지금에 와서는 겨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가물거릴 정도이다. 신기한 일이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뀌기 전, 몸에 닿던 느낌과 기분이 생생히 기억났던 것 같았다. 그런데 요즘은 문득문득 벌써 이렇게 따뜻해졌나 하고, 주변 날씨와 환경이 확 낮설게 느껴지는 일이 보통이다.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집에 누워 잠들고 다시 차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고 책상에 앉아 일하고 반복되는 생활에 무뎠해지는 것인가. 날씨의 달라진 얼굴을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다. 달라진 날씨가 늘 새롭게 느껴진다. 마치 여행 같았다. 더욱 반갑다. 그래서 다시 이 여름의 시작이란 아름다운 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의 숙소는 예끼마을에 위치한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에서 묵기로 했다. 따뜻한 한옥이다. 예전 추억이 떠올랐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살던 주택, 작고 무너져 가던, 하지만 어린 나에게는 한없이 커 보이고 마당과 지붕, 꿈이 가득한 곳이었다. 이곳도 그랬다. 내가 좋아하는 구석구석이 존재하는, 따뜻하고





한옥의 즐거운 손님들

아름다운 집이었다. 숙소의 이름은 처사, 이곳이 깊은 곳이긴 한 것인가. 어딘가 편안하게 초야에서 어울려 설 수 있을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다. 지난번 묵었던 호텔과는 확연히 달랐다.

신기하다. 돌을 비교할 수는 없을 듯하다. 돌은 다르니. 부드러운 카펫 대신 까슬까슬한 흙이 신발 속 내 발을 귀찮게 하고 거대한 건물 자동문 대신 빗장이 달린 멋지고 든든한 대문이 나를 맞이한다. 남의 집 친구라면 부럽고 내 집의 친구라면 든든할 그런 나만을 기다릴듯한 친구다. 빗장을 풀고 대문 문턱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선다. 위엄있는 문 안 세상 밖 시름을 막아줄 듯 아늑한 대문 지붕을 지나 잘 정돈된 흙마당이 기다리고 있고, 꽃나무가 있고 이미 나보다 먼저 들어온 새와 벌레와 같은 손님들이 노닌다. 그 손님들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자연스레 그 공간에 존재했다. 한편은 반갑고 다른 한편 그들에게 심술을 부려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용서하려 한다, 평화로운 풍경이므로.

아름다운 숙소를 뒤로하고 여행을 계속한다. 안동의 도산면을 다 둘러볼 수는 없겠으나 조금씩 알아보고 싶다. 도산면은 아름다운 곳인 듯하다. 우선 예끼마을을 지나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활쏘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려 한다. 맑은 하늘 맑은 공기에 창문을 열고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며 도착한 곳은 생각과는 조금 달랐다.



누군가 산속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화창한 날씨 탓인가, 아름다운 곳이었다. 사극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이곳저곳 기웃대다 아름다운 건물 사이로 들어가 자연스레 옷을 갈아입었다.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았다. 경주 여행에서 주저하는 마음에 하지 못했는데 이곳에선 용기인 듯 등 떠밀린 듯 갈아입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 어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나 보다. 옷을 갈아입는 곳에는 매우 정갈하고 다양한 옷들이 많았다.

어린 시절, 즐겁게 하던 게임의 포목상에 온 듯 다양한 종류의 옷들에 고민되었다. 어떤 사람이 되어보면







즐거울지, 왕이 될지, 노비가 될지, 고관대작이 될지, 곳곳한 선비가 될지, 아이가 될지, 어떤 색이 좋을지, 어떤 장신구가 좋을지 고민이 이어진다. 일행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쉽다. 그 세계관을 완성할 배우들이 부족한 듯한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서일는지 모른다. 그래서 몹시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결국 용포를 입었다. 사극에서 본 세자 같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높은 벼슬아치의 감투가 매력적이고 어울리진 않았을까 후회해 본다.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호랑이를 잡으러 군영으로 향했다. 마치 군대에서 보았던 간부 숙소 옆 마련된 테니스장처럼 위엄있는 군영 한편에 마련되었을 법도 한 제법 설득력 있는 위치에 마련된 멋진 장소였다. 늘 한번 국궁을 체험해 보고 싶었는데 멋진 경험이 될 듯했다. 이미 팽팽하게 긴장된 활시위에 하나의 화살을 얹어 더욱 힘을 주어 당기고 터질 듯 당겨진 활시위를 유지하며 과녁의 호랑이를 노린다. 손가락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즈음 화살의 끝이 호랑이의 미간을 찔렀고



한국문화테마파크 활쏘기 체험 결과

손가락의 해방과 함께 화살의 단발마 비명과 함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묘사스러운 눈의 호랑이가 나를 노려본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나에게는 9대가 남았다. 쉽게 봤던 활쏘기는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고 힘든 만큼 강한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생각보다 과녁의 호랑이 얼굴은 작고 나의 숨씨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웠고. 어려운 만큼 유쾌하였다. 사람은 경험으로 성장한다. 이번 여행이 나를 성장시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다. 잡은 호랑이를 이고 지고 가져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추억을 위해 인형이라도, 인형 가죽이라도 전리품으로 갖고 싶은 기분이었다. 또 아름다운 추억이 쌓이는 듯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이곳저곳 둘러보니 시간이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아쉽기도, 다음이 기대되기도 한다. 테마파크에서의 많은 추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었기에 아쉬움은 조금만 느껴도 괜찮을 듯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즐기고 이제는 숙소로 돌아간다. 예끼마을에서의 오늘 하루 나의 숙소로 돌아간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이 시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가. 예끼마을에서의 저녁 어스름을 마주치니 잊고 지내던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른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저녁 시간에 대한 설렘이 있었다. 동네의 친구들,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모임의 중심인지도 없다. 그저 몇 가지 놀이가 있었다. 그때 그 놀이 들 전부는 기억나진 않는다. 대부분 술래잡기였었던 듯하다. 지칠 줄 모르고 뛰놀다가 어느새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그러다 수가 모자라 놀이가 멈추면 그제야 정신이 든다. 정신이



한국문화테마파크 의병지휘소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에서의 바베큐

들고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배고픔이었다. 엄마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만들어 줄까. 어릴 적 일하시느라 바쁘신 어머니께서 매일 만들어 주시진 못하셨지만,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음식은 언제나 맛있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그 여름의 어스름을 만나면 그런 추억이 떠오른다. 그때 느꼈던 행복감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예끼마을에서의 저녁 어스름을 맞이하며 숙소로 돌아갔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저녁에 익숙해져 있다가 한옥에서 바라보는 저녁 풍경은 오랜만에 느껴지는 몽클한 그리움이었다.

따뜻한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으나 배고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행길에 밀려오는 시장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즐거움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저녁은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소시지를 베어먹으니, 행복이 금세 곁에 다가왔다.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 쪽마루의 울퉁불퉁한 굴곡이 느껴진다. 지나온 세월처럼 멋지고 시원한 마루에 앉아 세상의 어둠을 맞이했다. 오롯이 우리들만의 시간이었다. 고요한, 오직 풀벌레 소리만이 맴도는 아름다운 적막이라는 시간의 공연이 이어졌다. 동행인과 쓸쓸함을 '함께' 느껴보는 묘한 시간이었다. 일상에 못다 한 이야기, 생각해 보지 않았던 혼자 간직해 온 옛 추억이 이 순간 한데 만나 함께 어울려 더욱 진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에서 본 야경

하게 깊어지는 밤이었다. 이 밤의 끝은 다시 아침이고 마치 영원히 반복되는 감옥이라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없을 소중한 밤이었다. 이 찰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쌓여 가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칠혹 같은 내 안의 밤하늘에 작지만, 찬란한 별들이 아웅다웅 모여 있는 나의 내면은 어둡지만 두렵거나 쓸쓸하지 않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쌓았다.

그래서일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웬지 차분해진다. 이번 여행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적막하고 아름다운 밤하늘이 내 마음과 같이 거기 있었다. 늦은 저녁까지 올려다보아도 좋을 멋진 하늘이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많이 보고 싶었다. 늘 빛나고 있었구나. 마냥 어둡다고 생각했지만 늘 존재했다. 때론 너무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깊은 밤하늘이 원망도 되지만 아름다운 별빛도 늘 함께 했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늘 존재한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그런 위안이 되는 밤인가 보다.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세자의 복색으로 활쏘기를 체험하고 고래의 등같은 기와를 엮은 한옥에서의 하룻밤. 어두운 밤하늘 속 빛나는 별과 같은 밤. 조금은 쓸쓸하지만, 조용조용히 침묵을 깨는 앞집 뒷집 즐거운 이야기 소리같은 밤. 고요한 밤하늘 찌르르 찌르르 우는 풀벌레 소리같은 밤.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여름의 시작이었다.

interview. 안동의 청년 기업가

simple food.
simple days.
slow life.

안도제유소·안도촌집 대표
엄성현

/ 글, 사진 이지현

푸르른 여름이 성큼 왔지만,
산불 피해를 당해 까맣게 타거나,
듬성듬성해진 산과 들을 보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아픔을 보듬어 줄
따뜻한 안동을 그리며,
2025년 안동문화필
여름호에서는
예끼마을에 터를 잡은
안도제유소와
안도촌집 대표, 엄성현 씨를
만났습니다.



안도제유소 전경



안도촌집 앞에서 포즈를 취한 엄성현 대표

Q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동문화필 구독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현재 안동의 예끼마을에 살면서 안도제유소와 안도촌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름을 짜고 커피를 내리고, 숙소를 청소하면서 하루를 천천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Q 지금 하고 계신 일로 본인을 표현하시는군요. 운영하시는 안도제유소와 안도촌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A 창업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단일 사업만을 구상했던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름집과 커피집, 숙소가 제 안에서는 따로 분리된 다른 산업군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제 삶이 곧 일인 까닭도 동일한데요. 저는 소박한 식탁, 단순한 일상, 느린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일과 삶이 함께 굴러가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조금 멋을 부려보자면, SIMPLE FOOD, SIMPLE DAYS, SLOW LIFE.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안도제유소(ANDO.OILMILL)

A 카페로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도제유소에서는 로컬 식재료인 참기름과 들기름을 직접 짜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웬 기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름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보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정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우선 방앗간이라는 아이템은 지역성과도 잘 맞고, 설비 규모가 작아도 1인 작업이 가능하고, 디자인·생산·판매까지 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제 손으로 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익을 무렵, 카페를 겸한 공간으로 확장했습니다. 커피는 아주 친숙하니까, 많은 분이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께 브랜드도 소개하고, 잠시 쉬며 머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브랜드의 정서와 리듬을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접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참깨와 참기름을 활용한 먹거리로 확장하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중인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안도촌집 거실에서



안도촌집 거실

안도촌집(ANDO.CHONJIB)

A 원래는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소인 ‘고이’의 쇼룸이었어요. 제가 그 브랜드를 팔로잉(FOLLOWING)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숙소를 넘겨받았죠.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한옥스테일로 운영하고 있어요. 숙소 자체는 조그마한데, ‘주방을 겸한 거실’과 ‘다도실을 겸한 거실’을 별도로 두어서 주방에선 함께 온 식구들과 함께 요리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다도실에선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죠.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이어짐을 구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Q 대표님의 설명만 듣는데도 제 호흡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죠?

A 저는 제품디자인을 전공하고 제품디자이너로 근무했습니다. 일도 적성에 잘 맞고 재미있었지만, 제가

취미 부자이고 일 외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는 편이라 항상 바빴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일과 일 이외의 삶이 분리된 구조가 균형이 맞지 않고 버겁다고 느껴졌고, 일과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졌어요. 그러기 위해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소도시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안동을 선택했습니다. 거창한 포부로 창업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이 창업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Q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이곳 안동으로 이끌었군요. 여유와 자연스러움이 느껴지지만,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들도 있겠죠?

A 좋은 로컬브랜드를 만났던 순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 보면 저 스스로가 행복한 창업자라고 느껴지네요.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소 ‘고이’와 진맥소주를 만드는 ‘맹개술도가’는 제가 롤모델로 삼는 브랜드인데요, 두 브랜드가 모두 공교롭게 예끼마을에



안도촌집 다도공간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도 컸습니다. 그러나 ‘고이’가 사용하던 쇼룸 공간(지금의 안도촌집)을 제가 사용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설렘과 환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멋진 로컬 브랜드의 운영자들과 접점이 생긴 건 정말 창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지치는 일들과 마주합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맹장 수술을 하고, 대장포진에 걸리면서 한 달 건너 하나씩 접치면서 일어나서 영업을 매일 하지 못했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힘들었고, 폭우로 천장이 내려앉아 어쩔 수 없이 한 달 가까이 영업을 못하고 공사를 해야 하기도 했어요. 깔끔하게 해결된 적은



안도제유소의 근본, 기름집

없었고, 천천히 회복하고, 천천히 일하고, 다시 천천히 청소하고, 가게 문을 열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천천히 그리고 성실히 지나온 과정이 오늘 대표님의 삶과 일을 구성하게 되었군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또 이루어 가실 계획인지 들려주세요.

A 최근 들어서 제가 구상했던 사업의 모습은 일차적으로 갖춰졌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지금을 유지하며 하나씩 다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생각은 조금은 내려놔고, 조금씩은 더 잘하시는 분과 협업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작업은



안도제유소 2F

브랜딩과 패키징입니다. 그리고 카페 메뉴에 대해서도 로컬 업체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업 루틴을 안정화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SNS 마케팅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벌리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창업을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실험하고 있는 이 삶의 구조가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어요.

Q 그 매력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실 날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안동 관광 코스 소개로 본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A 숙소를 운영하다 보니, 여행차 오시는 손님들에게 안동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안동에는 워낙 매력적인 공간이 많아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천천히 여행하시라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가운데, 특별히 바이크를 타는 분들에게 더 추천하고 싶은 ‘안동의 술’을 만나는 코스입니다. 안동 시내에서 도산면 방향으로 이어진 35번 국도 코스로, 안동 시내에서 출발해서 제가 거주하는 예끼마을에 도착하면 진맥소주를 만드는 ‘맹개술도가’를 먼저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35번 국도로 가서 도산서원을 지나쳐서 ‘264청포도와인’ 양조장을 만나고, 다시 절경을 따라가면 농암종택에서 ‘일엽편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태백 방면으로 더 이동할 수도 있지요. 한 군데씩 들러서 술 이야기를 듣고 한 병씩 사 모으며, 국도 드라이브를 즐기면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수”를 직접 만들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박한 식탁, 단순한 일상, 느린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일과 삶을 함께 굴러가는 엄성현 대표와의 인터뷰는 제게도 쉬어가는 시간이기도, 흐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과정을 촘촘히 채워나가며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안동문화필 여름호의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안동의 맛

글, 사진 이희철

용상닭갈비



용상닭갈비는 닭갈비뿐만 아니라 들깨칼국수, 버섯 된장 전골, 제육볶음 등 다양한 메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용상시장 내에 위치해 넓은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 아담한 규모에 테이블 수가 많지 않아서 식사 시간에는 늘 손님으로 붐빈다. 대표 메뉴인 닭갈비는 보통맛과 매운맛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이 담긴 정갈한 반찬들과 함께 웅심이 들어간 미역국이 제공되는데, 이것이 이곳만의 매력이다. 닭갈비는 주방에서 충분히 익혀 때문에 살짝 조리서 맛있게 즐기면 된다. 푸짐하게 들어간 양배추는 양념과 잘 어우러져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고, 쫄깃한 떡은 중간중간 씹는 재미를 더한다. 마지막으로 닭갈비 하면 빠질 수 없는 김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볶아낸 볶음밥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면 금상첨화다.



- 주소** 경북 안동시 경동로 862 C동 5호
- 전화번호** 0507-1338-0054
- 영업시간** 업체 문의
(브레이크 타임 14~17시)
- 휴무일** 업체 문의





하회터줏대감

하회터줏대감은 안동의 대표 음식인 안동찜닭과 간고등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이다. 여기에 더해 정성스럽게 손질한 북어를 보푸라기처럼 끓여낸 것을 올린 '보푸라기 비빔밥'도 함께 선보이고 있어 방문했다. 보푸라기 비빔밥은 과거 종갓집에서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대접하던 안동의 전통음식이라고 한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에 단체 손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식 테이블이 있고, 별도로 분리된 독립 공간도 마련돼 있다. 보푸라기 비빔밥은 6가지 나물을 중심으로 그 위에 보푸라기를 먹음직스럽게 올려낸 구성이다. 함께 제공되는 간장 소스를 곁들이면 보푸라기와 밥, 나물이 어우러져 깊고 담백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아침 식사가 가능해 하회마을에서 숙박하거나 방문하는 이들에게 푸짐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안동의 맛이 담긴 정갈한 한 상을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217
-  **전화번호** 054-852-1400
-  **영업시간** 08:00~21:00
-  **휴무일** 연중무휴



호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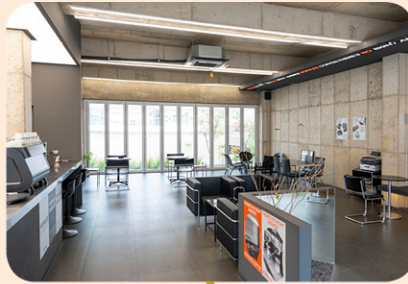
호록은 다양한 스트레이트티, 가향홍차를 시향하고 즐길 수 있는 홍차 전문점이다.

경북도청을 감싸고 있는 검무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운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 내부는 차분하고 따뜻한 무드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고 고요함과 조화를 이루어 차를 마시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뜻한 차를 주문하면 각 음료마다 잘 어울리는 앤틱크 찻잔을 제공한다. 찻잔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와 시간이 스며들어 있어, 손님이 찻잔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특별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료에 곁들이면 잘 어울리는 쿠키, 휘낭시에, 에그타르트, 스콘 등 수제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특히 카야 버터 샌드는 고소한 아몬드가 들어간 쿠키 사이에 카야 잼과 버터 크림을 넣어 차와 잘 어울린다. 차의 깊은 세계를 오롯이 담아내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자.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88-16
-  **전화번호** 0507-1453-1256
-  **영업시간** 11:00~21:00 라스트오더 20:30
-  **휴무일** 네이버 공지 참고





노를즈커피

노를즈커피는 원룸이 밀집한 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카페로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독특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콘크리트의 거친 질감을 그대로 드러낸 노출 천장과 벽면, 회색 톤의 바닥이 어우러져 세련되고 정제된 미니멀리즘을 보여준다. 매장 전면과 후면이 통창으로 탁 트여 있어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고 덕분에 실내는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특히 천장에는 'THERE'S NO RIGHT ANSWER' 라는 문구가 LED로 반복되어 노를즈커피만의 자유롭고 유연한 철학을 은은하게 전달한다. 기본 아메리카노부터 디카페인, 콜드브루, 로투스 과자 가루와 크림이 올라간 시그니처 음료 '노를즈라떼' 등 메뉴 구성도 다양하다. 노를즈커피는 특유의 무드와 감각적인 공간이 어우러져 있어 나만의 속도를 찾고 싶은 날이라면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  **주소** 경북 안동시 옥동2길 30 1층
-  **전화번호** 010-5434-3661
-  **영업시간** 평일 08:00~20:00
토 10:00~20:00 일 12:00~19:00
-  **휴무일** 인스타그램 공지 참고



모두가 조금씩 농부인 사회

/ 글, 사진 김국희



순을 치고 풀을 뽑은 후 밭 사이에서



말랑버스 3강 '농인류학, 농생태학 입문'

“사실 힙의 끝은 농사야.”라고 대답해 왔다. 농사를 짓는다고? 라는 반응에 대한 농담조의 대답이었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좀 부끄럽다. 나는 내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밭에서의 모습은 때로 힙과 너무 까마득하게 멀어 마치 힙 너머로 보였다.

4월 초, 해남의 '말랑'이 이끄는 '말랑버스'를 통해 “조 선생님”의 농생태학³⁾ 수업을 들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데, 수궁할 수밖에 없으며, 긍정하는 순간 반발심이 들고, 곧 그 반발심이 부끄러워 외면하고 싶지만, 초월적으로 매혹적인 강의 소개 문구를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사실... 망설임이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농사는 늘그막에 가서 짓고 지금은 흐르는 시간의 강 위에 너의 몸을 올려두어야 해.”라는 글을 읽으며 흥... 아난테. 나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내가 (어떤)농사를 잘못 짓고 있다는 생각을 인정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쓴 다음 신청했다. 그 과정은 지금 생각하니 좀 굴욕적이었다. 내 안의 어떤 결핍을 뒤틀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끝끝내 인정하는 아픈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씩씩한 척해도, 마침내 나는 외로웠다.

마침내 외로운 자는, 그나마 감이 좋아 가야 할 곳을 잘 찾았다. ‘이야기’를 따라 걸어 들어간 곳에서

3 생태학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농업을 규정·분류하고 연구하는 학문. 농업의 건강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생태학적 원리들을 규명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침내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김종철⁴⁾의 진실한 후예라 할 만한 전농인, 고집불통 쪼. 치열하게 농(農)의 삶을 살면서, 과학적 탐구를 놓지 않고, 평생을 공부하고, 친구들과 쉼 없이 나누는 인물.” 그를 ‘이야기’ 하는 그, 또 그 ‘이야기’ 속의 그를 만나는 일만으로도 이번의 시간이 참 좋겠다고 여겨졌다. 두근거리며 첫 시간을 여는데 거기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다.

쪼는 세계는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물음을 던지며 갈등, 즉 서로 꼬이는 방향이 다른 갈나무와 등나무⁵⁾ ‘이야기’를 꺼냈다. 공동의 의미 만들기, 혹은 의미를 공동으로 현재화하는 감응(공감)을 바탕으로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가 서로 지혜를 나누고, 위기의 상황에서

고민을 함께한 결과였으며 인간은 결국 ‘이야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자본주의’ 역시 이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 많은 이가 동의했기에 발전하고 확장된 상태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 나는 농생태학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이미, 완전히 빨려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결국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야 할지 결정된다. 생태학은 영어로 ‘ecology’ 라고 쓴다. 이 말은, oikos⁶⁾ 와 logos⁷⁾를 합친 말이다. 이렇게 농생태학은, (자연)의 살림살이를 잘 배워 농사에 써먹는 학문이 된다.

이어 지구의 돈은 에너지이고 특히, 열의 경우 비가역적⁸⁾



하회 시농제에 모인 사람들

4 우리나라 대표 생태운동가. 전 ‘녹색평론’ 발행인.

5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충돌하게 된다는 뜻, 갈등.

6 사는 곳이라는 뜻이 있는 그리스어. 영어 접두어인 에코(eco-)에 해당한다.

7 그리스 철학에서, 언어를 매체로 하여 표현되는 이성. 또는 그 이성의 자유.

8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아이들도 함께 짓는 농사

(한쪽으로만)으로 흐른다는 말에서는 어떤 일인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뜨거운 공기가 항상 차가운 공기로 이동하며 이 방향은 바뀔 수 없고, 둘의 온도가 같아졌을 때 더 이상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열의 죽음 = 혼돈과 무질서라 설명하시는데, 와중에 내가 받은 '뜨거운 공기'들이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한 번 그렇게 된 뒤에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사무치게 슬펐다. 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으로, 온 우주의 비가역적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도 하나도 모른 채 살아온 무죄한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바뀌는, 즉 가용 에너지가 불가용 에너지가 되는 방식이 바로 엔트로피⁹⁾의 증가였다. 나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인 중 한 명으로, 엔트로피 증가 속도를 엄청나게 부추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처음 받아들여야 했던 '이야기'였다.

다행히 그런 와중에도 엔트로피 증가 속도와 강도, 규모를 줄일 방법이 있다고 했다. 지구에는 태양에너지라는 무한해 보이는 큰 선물물이 있다. 선물은 규범과 규칙이 있어 함부로 쓸 수 없다.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를 움직이는 가장 큰 존재는 식물이고 그렇다면 결국 식물의 흐름에 맞춰 사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된다. 농부가 늘어나는 것, 농이 중요하다는 공감감이 늘어나는 것, 그렇게 모두 조금씩

농부가 되는 일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로 느껴졌다. 나는 완전히 식물과 농사의 아름다움에 동화돼 있었다. 아래의 글은 4월 중순에 시농제(始農祭)를 준비하며 조금씩 농부인 친구들에게 쓴 초대편지이다. 잠깐 들여다보자.



새참 먹은 후 잠깐의 휴식



하회 단오제에서 함께 한복을 입고 창포에 머리를 감은 농사팀



여신탐사대와 현경선생님 만남, 인왕산 답사

9 열의 이동과 더불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감소 정도나 무효(無效) 에너지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양.

초대의 편지

적게 노동하고 생산량을 늘려 축적하는 근대식 농법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토종 농사. 생산량이나 소득과 상관없는, 어쩌면 농사의 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 일을, 몸을 쓰고 시간을 내어가며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왜 그렇게나 공감되고, 심지어 낭만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마 저에게는 환상, 낭만 같은 단어가 '현실'과 붙어 있어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깊이 위로되었습니다. 특히 지혜로운 공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며 '사람'의 뜻과 조건에 대해 들었을 때는 속으로 영영 잊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선언문처럼 써 보겠습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다. 사람은 '살다'와 'ㅁ'의 결합. 즉,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사람이다. 미생물 사람, 흙 사람, 나무 사람, 지렁이 사람이라고 불러야 맞다. 사람에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
- 사람은 자신이 누구와 살지 선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모든 것을 하며 인간이 된 모양입니다. 저는 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내가 왜 땅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지에 대한 답을 굉장히 다른 방향에서 쌓은 이야기로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쓸데없이 보이는)짓이 응원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농생태학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제 생각과 섞어 여기 적어둡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토양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종의 세계 만들기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사람으로서, 토양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선언과 실천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괜찮다. 논바닥의 균열처럼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

문명 전환도 사회변혁도 아닌, 회복에 가장 무게를 두는 삶의 선택. 식물과 흙, 사물과 인간의 연결감을 회복하는 일. 열매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만을 위한 마율이 아니라, 식물 하나를 위한 토양 공동체로 세계를 인식하겠다는 다짐. 근거리에서 의무적으로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생활. 공동체, 농사, 농악, 소리, 굿, 품앗이, 절기.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당연한 감각. 너를 지극하게 사랑하면 너도 나를 본다는 환희의 순간. 저는 최근에 이보다 아름다운 공부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 합니다.

이번 시농제는 모두가 토양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전 우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퍼붓겠다고, 그러니 전 우주 모든 사람아, 부디 나를 사랑해 달라는 고백 편지를 써주세요.

아마 그것이 전부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팔 벌리고 기다릴게요.

약간 격앙된, 지난 나의 편지글에는 투명한 진실과 진심이 있다. 농생태학 수업을 들으며 한 '공부'가 벌써 우리의 땅 위에서 몸의 변화, 즉 진짜 '공부'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 하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 서툰 농사가 '흐르는 시간의 강 위에 몸을 올려두는 일'이라고, 더불어 '모두가 조금씩 농부인 사회'로 가는 길이길 바란다고 답하고 싶다.

최근, 모험하는 여자들의 커뮤니티 '우먼베이스캠프'의 개더링, '여신 탐사대'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 과거 여신들이 가졌던 지혜, 강인함, 생명의 힘을 계승하며, 모험 속에서 자신 안의 서사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잃어버린 원초성과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름다운 프로젝트이다.

과정에서 읽게 된 바버라 위커의 『여성 상징 사전』에서

나는 나와 연결된 상징으로 지팡이를 골랐다. 어린 시절 나무로 만든 막대기, 혹은 지팡이를 들고 산과 바다를 누볐던 그 마음 그대로, 이번에는 내가 키운 삼으로 생명력 가득한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잘 자란 삼 줄기를 뿌리째 변쩍 들고 비탈을 뛰어 내려오는 나를 상상해 본다. 목에는 삼베로 만든 기다란 망토를 두르고 있다. 몸은 가볍고 기분은 날아간다. 나는 이 장면을 고향 집의 사진첩에서 본 적 있다. 잊은 지 오래된 신화가 여기에서 비로소 살아난다.

절기를 나누는 사이, 열리는 새로운 마을

/ 글, 사진 양애진

옆집에 살지 않는 이웃

서울 시민인 나는 올해 안동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것은 그곳에 자리 잡은 친구 국희 덕분이다.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마을, 관계로 연결된 커뮤니티. 나는 그곳의 주민은 아니지만, 계절마다 그곳을 찾는 '관계 인구'로 살아보기로 했다. 하회 시농제는 그 시작점이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전국 각지에서 친구들이 모였다. 사실 농사라는 건 원래 날씨를 보며 해야 하는 일이다. 남해 바닷가 마을에 살 적에는 매일의 공기 흐름을 읽으면서 땅과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이 상상의 마을에서는, 날씨보다 일정이 우선이었다. 멀리서 일정을 맞추고 모이기 위해서는, 흠보다 달력을 따라야 했다. 구성원들이 바뀌면 생활 리듬도 달라지는 법이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날, 그 시간, 우리가 '마을로서 같은 자리에 함께 있다'는 감각이었다.

비인간 되기, 인력 쟁기질의 리듬

태어나 처음으로 '인력 쟁기질'을 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쟁기를 끌며 밭을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밀며 흠을 뒤엎는다. 그렇게 나는 소가 됐다. "이랏 이랏" 소리에 맞춰 밭걸음을 옮겼다. 낮은 도구와 낮은 자세. 처음에는 마냥 삐걱거렸다. 허리는 굽어질 것 같았고, 밭은 자꾸만 진창에 빠졌다. 걸음을 옮길수록 늪진한 흠이 신발창에 쌓였다. 내딛는 한 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결국 나는 논 가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말았다. 단단한 소의 발굽과 달리 부드러운 밭바닥에 땅의 피부가 온전히 느껴졌다. 밭가락 사이사이로 고운 흠이 들어왔다.



고된 노동은 노래를 불렀다. "어기야 디어차" 어디선가 들어왔던 소리가 절로 나왔다. 음정은 어설프고 박자도 제각각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함께 걷던 친구와 밭걸음이 조금씩 맞아가기 시작했다. 옛 농부들은 소의 보폭에 맞춰가며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불규칙한 박자는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박자였다. 텅달아 왜 전통 노동요가 '메김소리'와 '밭음소리'로 이뤄지는지 알 것 같았다. 숨이 차서 내내 부를 수는 없어도, 서로 주고받으니, 노래가 됐다. 혼자 부를 수 없는 노래, 함께해야 완성되는 리듬. 노래가 노동을 불렀다. 호흡에 맞춘 노래는 밭걸음을 잇고,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게 했다. 리듬이 한 번 몸에 깃들자, 쉽사리 멈출 수도 없었다. 오히려 점점 속도가 붙었다. 온몸을 쓰고 있다는 감각은 피곤함 대신 쾌감을 불렀다. 어느새 우리는 놀이 중인 것처럼 신나게 웃고 있었다. 좌식 노동자의 굽은 등허리는 고랑처럼 반듯하게 펴졌다. 반복된 몸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명상이고 놀이였다. 리듬 안에서 일과 놀이는 '하나'가 됐다.

하회 시농제, 리듬을 여는 문

시농제는 단지 씨를 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가 아니었다. 올 한 해 동안 함께 나누게 될 리듬의 첫 시작이었다. 계절의 리듬, 노래의 리듬, 노동의 리듬, 호흡의 리듬. 삶의 흐름은 제각각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리듬 위에 놓여있었다. 가장 새로운 마을에서 펼쳐지는 가장 오래된 농사 의례. 우리의 시농제는 전통의 재현이 아니라, 관계의 현재화였다. 관계의 작동 방식을 다시 설정하는 일이었다.



밭 한가운데 위치한 동그란 빈터로 십여 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다양한 개성만큼 제사상에는 각양각색의 공물이 올라왔다. 머나먼 페루에서 온 피리, 폐업을 앞둔 을지로 가게의 사업자등록증, 아이들 손때가 잔뜩 묻은 주황색 장난감 트럭,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풍물북... 어느 제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다를 것 없었다. 한 명씩 차례로 나와 읊은 기원에는 이웃에 대한 애정, 땅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새로운 마을, 리듬 커뮤니티

우리들의 마을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서류상에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새싹이 돌아나면 서로를 생각하고, 계절이 바뀌면 돌아오고, 또다시 같은 흙을 만지며, 함께 밥을 먹을 사람들이 있다. 마을은 그 안에 있다. 비록 옆집에 살고 있지는 않아도, 때때로 시간의 어긋남이 있어도. 그럼에도 날씨의 변화가 몸의

움직임을 바꾸고, 몸의 변화가 관계를 바꾸듯이, 계절을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이 우리를 이어줄 것이다.

빗물을 흠뻑 맞아 머드팩처럼 부드러운 흙, 쨍쨍한 햇볕을 머금은 자박자박한 흙. 발바닥에 닿던 흙의 촉감이 여전히 생생하다. 내가 딛고 있던 땅은 단지 흙이 아니었다. 맨발 아래는 수많은 미세한 생명들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제자리에 남아, 씨앗을 틔우고 뿌리를 키워나갈 존재들이었다. 찰나의 바람 같은 우리와 달리, 사시사철을 오롯하게 통과할 또 다른 이웃들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잊고 있었다. 다시 흙으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다시 만났다.

지금 우리는 고향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간다. 태어난 곳이 곧 고향이 아니고, 사는 곳이 마을도 아니다. '고향'과 '마을'은 낭만이거나, 거부감이거나, 아예 비어 있는 단어가 됐다. 그 빈 자리가 다시 채워지고 있다. 절기의 리듬을 나누는 이웃과 곁을 내어준 땅과 미생물 덕분에. 조금 더 넓고 느슨하지만, 그만큼 조금 더 깊고 든든한 우리의 안전망, 새로운 마을이다.



안동의 사계절 축제

- 재미와 감동이 있는 사계절 축제도시 안동-

/ 글, 사진 한국정신문화재단

관광도시 안동은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축제들로 가득하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축제들이 펼쳐지는 안동으로 오면, 누구나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1 봄을 알리는 축제

안동벚꽃축제

봄이면 안동은 낙동강을 따라 벚꽃의 물결로 뒤덮인다. '안동벚꽃축제'는 낙동강을 따라 만개한 벚꽃길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문화축제이다. 중앙선 1942구안동역사 부지를 메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탈춤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개통하여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한국정신문화재단 건물부터 안동상공회의소까지 이어지는 벚꽃도로 전 구간을 공연, 전시, 체험, 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 운영한다. 안동벚꽃축제를 찾은 상춘객들이 특별한 볼거리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벚꽃 거리에서 다양한 체험과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벚꽃터널, 포토존 공간들을 조성하고 있다. 안동벚꽃축제에서 화려하고 따뜻한 봄을 즐겨보자.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안동을 대표하는 봄축제는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이다. 테마파크형 축제를 콘센트로 색동놀이, 연희난장, 안동놀이, 대동놀이 4개 테마 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지역 연계행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어린이날 관광주간에 개최되어 온 가족 놀이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K-PLAY 색동놀이와 시간대별 연희난장, 마술쇼, 버블아트, 번짐, 저글링공연, 서커스광대극, 불쇼, 마임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저녁에는 원도심에서 메인 축제장까지 테마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풍물경연을 볼 수 있다. 야간에는 축제 핵심 프로그램인 차전대동놀이를 600여 명이 선보이는 관광객 참여형 대형공연으로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연예인 공연과 불꽃놀이가 매일 밤 펼쳐진다. 지역 연계행사를 살펴보면 김병길가요제,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새봄맞이음악회, Spring Vibe, 어린이날 큰잔치, 경상북도노국공주선발대회, 어린이 백리장 및 사생대회, 대형 놀이동산, 워터존, 체험 및 플리마켓, 품바공연, 포토존, 야시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2 안동의 여름축제

안동 수(水)페스타

Hot Summer! Cool in Andong! 한여름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물과 함께하는 축제, '안동 수(水)페스타'는 낙동강변 둔치 일원에서 개최되는 안동 대표 여름 물축제다. 안동문화예술인들의 신나고 감성적인 공연, 해먹&파라솔이 펼쳐진 피크닉,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줄 물놀이와 물총싸움, 불꽃놀이와 함께하는 EDM파티,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수제맥주를 낙동강변에서 즐겨보자. 안동시가 보유한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 낙동강 수상에서 즐기는 패들보트 체험을 비롯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낙동강에서의 물놀이를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 친화적인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월영야행

안동 국가유산 야행 ‘월영야행’은 매년 여름 열리는 대표적인 야간 문화행사로, 안동댐 월영교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를 주제로 안동의 대표 국가유산과 자연 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선보이며, ‘8야(夜)’라는 테마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야경 감상, 문화해설 프로그램, 전통공연, 전시, 체험, 야시장 등이 있으며, 특히 월영교의 조명 연출과 전통 등 전시가 주요 볼거리이다. 월영교 일원에는 임청각, 법흥사지칠층전탑, 안동석빙고 등 다양한 국가유산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축제장에서는 하회별신굿놀이, 안동넛다리밟기, 문화 예술 공연이 진행되어 안동의 국가유산을 가깝게 만나고 즐겨보자.



3 가을에 만나는 안동 대표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세계보편문화인 탈과 탈춤을 기반으로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5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중앙선 1942안동역, 탈춤공원 및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의 주제인 “춤추는 탈, 다양한 얼굴을 찾아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자 표현의 도구였던 문화가 가진 역동성과 생명력을 춤으로 승화시켜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매개체가 탈과 탈춤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탈춤축제는 탈과 탈춤이 있는 정체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마스크 체인지존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반드시 탈을 착용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Mask)이 많은 축제장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탈 문화테마거리, 세계탈 전시, 탈 등거리 조성 등을 통해 만든 축제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화합과 대동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4 차가운 겨울을 만끽하는 축제

안동암산얼음축제

대한(大寒)과 소한(小寒)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겨울여행 안동암산얼음축제.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고의 빙질을 자랑하는 안동 암산에서 매년 영남 최대 겨울축제가 열린다. “대한이와 소한이의 신나는 겨울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가족형 겨울축제인 안동 암산얼음축제는 추억 만들기 좋은 겨울에 자녀들과 함께 정든 옛 고향 동리를 닮은 정겹고 포근함이 묻어나는 암산에서 썰매타기, 팽이치기, 빙어낚시, 순백의 얼음빙벽과 얼음조각들을 만끽하며 아이들에게는 부푼 꿈과 희망을, 어른들은 추억과 향수를 가득 담아 갈 수 있다. 천혜의 자연절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암산은 겨울이면 보얀 눈으로 덮여 마치 하얀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곱게 그림을 그려 놓은 듯 아름다운 겨울풍경으로 바뀌어 간다. 자암산의



청정한 바람이 차가운 동장군을 몰고 와 파랗게 굽이쳐 흐르던 미천을 새하얗게 빛나는 얼음판으로 만들면 매년 얼음을 지치고자 찾아오는 아이들의 신나는 비명 소리와 함께 사계절을 꼬박 기다렸던 암산얼음축제가 막을 올린다.



6. 21.(토) 17:0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7. 25.(금) 19:3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8. 15.(금) 19:3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6. 14.(토) ~ 11. 8.(토)
안동하회마을 낙동강변 일원

안동의
축제·행사



6. 20.(금) ~ 6. 22.(일) 11:00~22:00
웅부공원, 문화공원 일원



7. 11.(금) ~ 7. 13.(일) 16:00~22:00
선성현문화단지 일원



7. 26.(토) ~ 8. 3.(일)
안동 낙동강변(성희여고 앞 물놀이장)



8. 1.(금) ~ 8. 10.(일)
안동 월영고 일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Andong City: The Capital of Korean Ethical Philosophy,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서울역 ▶ 안동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